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New Year's Issue



연두범화

새로운 한 해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
창립 100년을 향해, 진지하게 실천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는, 말하자면 처음 맞는 오직 하나뿐인 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나날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대학(大學)>에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훌륭한 임금이 매일 사용하는 세숫대야에 이 좌우명을 새겨놓고 늘 읊으며 스스로를 훈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정진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교단 간부회에서 <2025년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없이 높은 것, 고귀한 것, 위대한 것을 찾아 구하는 그곳에 생겨나는 것이 공경이라는 마음이다. 이 공



경하는 마음이 발달해 가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낮은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난다. 인간이 진보·향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심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이상, 선인(先人)의 말씀에서 가리키는 인간의 중요한 마음에 근거하여, 올해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부부로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미래를 짊어질 유소년과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人道: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이끌고 인격 형성을 도모할 것인지, 어떻게 가정을 다스릴 것인지,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여 훌륭한 나라를 세워 갈 것인지, 하루하루 활기차게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합시다.

작년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을 심는다(기른다)'라는 근본 명제에 온 힘을 기울입시다 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중국 고대의 사상서인 <관자(管子)>에 '일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십년의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나 국가, 세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교육에 있습니다. 제가(齊家:가정을 다스리는 것)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간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학교에서의 교육도 더 충실해지며 진정한 의미의 '사람을 심는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양사상의 권위자로 알려진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1898-1983)선생의 저서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으면 한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애의 자리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아이의 못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뉘를 키우는 못자리가 갖춰지지 않으면 가을 수확 등은 바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만들기의 원점이 되는 역할은, 인생의 선배인 부부(젊은 세대), 부모(장년 세대), 조부모(고령 세대)가 확실하게 완수함으로써 유소년과 청년들의 인간성은 저절로 길러 집니다. 본 회의 창립 100년을 향해서 진지하게 몰두해 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을 존경하는 것

올해의 방침에 있는 '공경하는 마음'이란, 즉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보 향상의 바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완성인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높은 경지에 가까워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이 발달하면 저절로 부족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훈계하고 다스려서 새로운 노력·정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에는 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이 자신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고귀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타(他)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다. 자신의 존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타의 존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인 토이 요시오(東井義雄:1912-1991)선생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모두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사받은 생명이며 인생인 것이다’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생명은 태양을 시작으로 달과 별, 산과 강, 공기와 물, 주변 사람들, 동식물이나 벌레, 미생물과 세균까지를 포함해서 삼라만상의 은혜를 온 몸으로 받으며 살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주시하면 주시할수록 그 고귀함, 불가사의함, 감사함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의 깨달음, 진실의 도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부처가 될 종자, 즉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 깊은 곳에 부처와 같은 바람이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 우리들은 부처님께 함장·배례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부처와 같은 마음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배례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배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 우리들은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기적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하사받고 있다는 것, 마음 속에 부처와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진리·불법을 인식하는 능력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점을 명심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 불법에 기인하는 삶의 근본입니다.

조동종(曹洞宗)의 개조인 도겐(道元)선사의 말씀 중에 ‘이 하루의 생명은 고귀한 생명이다. 고귀한 몸이다. 불도에 정진하고 있는 몸과 마음을 스스로도 사랑하라. 스스로도 공경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한결같이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나의 몸, 나의 마음을 존중한다-이것을 자각하고자 합니다.

88세 ‘미수(米壽)’를 맞이하여 활기차게 함께 배우며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편 저는 올해3월20일이 되면 만87세, 우리나라로 88세가 되는데 이른바 ‘미수(米壽)’를 맞이합니다.

실로 신불(神佛)로부터 하사받은 생명이며 천지만물에 힘입어 오늘이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만, 조부모와 증조부모로 하여 3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숫자는 10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선조님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생명을 이어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구한 생명의 연쇄 속에서 개조님께서서는 개조님으로서의 인생을 걸으셨고 만 92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로서 만 85세의 인생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슬하에 생명을 받은 저는 저로서의 인생을 걸어 여든의 중반까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바통 터치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각기 개성이 있습니다. 수영으로 예를 들자면 메들리 릴레이 같은 것입니다. 평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접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릴레이를 하는 멤버로서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엄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바통을 다음 사람, 즉 자녀와 손주에게 맡깁니다. 인생이란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무엇이든 젊은 사람들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리와 허리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두뇌의 작용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향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도 후기의 유학자인 사토 잇사이(佐藤一

齋:1772-1859)선생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배워 두면 장년이 되었을 때 할 일이 있다. 정년기에 배워 두면 늙어도 늙지 않는다. 늙어서 배워 두면 헛되이 죽지 않는다’

어릴 때 배워 두면 장년이 되어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장년이 되어 배워두면 늙어서도 그 기력이 쇠퇴하지 않는다. 늙어서도 더욱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설령 생명이 다할 지라도 그 인망과 정신적인 유산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계가 평화로워지도록... 이러한 서원을 세우며 배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우면 마음 속이 별이 빛나는 것처럼 밝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활기차게 배우고, 실천하며, 석존께서 보여 주신 보살도(인도(人道))를 걸어 가고자 바라고 있습니다.

(교성신문 · 2025년1월호)

